

아동기의 복합외상경험이 성인기의 우울과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 내·외통제성의 매개효과*

심 두 경

백 용 매[†]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기의 복합외상경험이 성인기의 우울과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이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적 측면으로 간주되는 내·외통제성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소재 20~30대 성인남녀 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0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는 구조방정식모델(SE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외상경험척도, 내·외통제성척도, 우울척도, 적대감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복합외상경험은 외적 통제성과 성인의 우울 및 적대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적 통제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적 통제성과 외적 통제성 모두 아동기의 복합외상경험과 성인의 우울 및 적대감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합외상경험이 외적 통제성을 거쳐 우울과 적대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며, 복합외상경험이 있더라도 내적 통제성을 가진다면 성인의 우울과 적대감이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내·외통제성, 성인의 우울과 적대감

* 본 연구는 제 1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한국임상심리학회 주최 2016년 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백용매 /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3843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 E-mail : ymbaik@cu.ac.kr

최근의 외상과 관련된 연구들은 외상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자연 재해, 폭력적 범죄 등 일회적 외상을 단순외상 또는 Type I 외상(Terr, 1991)이라 하고, 주변사람들에 의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가해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같은 반복적 외상을 Type II외상이라 한다. 또한 Type II외상은 애착 외상, 발달적 외상, 또는 복합외상과 같이 연구자들마다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데 본 연구에서는 복합외상이라 지칭한다.

단순 외상의 경우 단기간 지속되는 증상에 머무르지만 복합외상의 경우 개인의 인지, 행동, 정서, 의미체계 등 인간 심리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증상을 포괄하고 있다 (Pelcovitz, Van der Kolk, Mandel, Kaplan, & Resik, 1997). 복합외상과 같이 외상 유발대상이 사람이고 고의성이 개입된 경우는 자연재해나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일 때보다 피해를 당한 개인에겐 더 견디기 어렵고, 외상 경험으로 정신과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처럼 사람에 의한 외상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Allen, 1995).

복합외상경험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에서는 복합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정서조절 어려움과 대인관계문제 정도가 높았고(고나래, 2008), 일회적 외상과 비교하여 복합외상집단에서 정서조절의 어려움, 부정적인 자기 인식과 대인관계 인식에 대한 변화 등 심층적인 자기구조에서의 변화증상이 더 많다는 결과가 있었다(박나영, 2010). 또한 복합외상의 대표적 유형인 아동기 학대나 가정폭력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기의 학대나 외상경험이 성인의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일반적인 외상 후 증상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고유나, 2015; 김은경, 2008; 김평화, 윤희미

2014; 윤상영, 2013; Maker, Kimmelmeier & Peterson, 1998; Zucker, Spinazzola, Blaustein & Van der kolk, 2006).

이렇듯 학대받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인기에 이르러 다양한 부적응을 겪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은 성인기 부적응을 초래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게다가, 성인기 부적응 그 자체를 적절히 다루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이는 복합외상경험이 인간 심리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증상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합외상경험과 성인기 부적응 사이에 관여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통해 이 두 변인들 간에 매개하는 심리적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복합외상경험은 자기, 타인, 외부세계에 대해 왜곡된 내적 표상으로 각인되고 기존의 적응적인 도식마저도 부적응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거나 적응적인 도식 생성을 방해한다(Roth, & Newman, 1991, 1993; Lebowitz, & Newman, 1996). 인지적 요인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복합 PTSD와 단순PTSD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집단이 단순PTSD보다 부적응적인 인지적 도식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Newman, Riggs & Roth, 1997). 이현정과 장희순(2014)의 연구에서는 복합외상집단의 청소년이 외상이 없거나, 단순 외상을 겪은 집단보다 초기부적응도식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그 외에도 아동기 외상경험과 초기부적응도식 간의 유의한 정적 관계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서지수, 2015; 이수지, 2014). 이로 보아, 복합외상경험이 개인의 인지 도식과 관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이 외에도 다양한 변인과의 관련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복합외상경험과 관련 있는 또 하나의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통제소재(locus of control)이다. 복합외상경험과 개인의 통제소재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지만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의해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외상의 대표적인 유형인 아동기 학대와 관련한 연구를 통해 그 영향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통제소재는 개인의 신념과 기대를 결정하는 주요한 결정요인으로도 기능하며 구체적으로는 삶의 태도, 인생관, 사건에 대한 대처와 성취에 대한 태도, 노력과 관련될 수 있다. Rotter(1966)에 의하면 통제소재는 개인마다 다르며, 행동이란 목표의 중요성과 목표달성에 대한 기대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진다. 내적 통제는 사건이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신의 능력, 노력으로 지각하는 것이며, 외적 통제는 그 원인을 환경이나 운, 또는 타인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통제소재는 개인에 따라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이기 때문에 성격변인의 하나로 간주된다.

Davis와 Phares(1969)는 부모-자녀의 관계를 통해 통제소재의 발달을 연구하였는데, 부모가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의 아동은 내적 통제성향을 보인 것에 반해 부모가 거부적이고 적대적인 통제를 하는 경우의 아동은 외적 통제성향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또한 Tolor와 Jalowiec(1968)의 연구에서는 양육자의 권위적인 통제와 적대적인 거부가 자녀의 외적 통제성향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Phares(1968)는 통제소재의 발달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가설을 제시했는데 부모가 심하게 거부적이거나 비난적일 경우 아동은 이러한 혐오

적인 환경을 방어하기 위한 보호 장치로서 외적 통제성향이 발달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조은정, 2004). 즉, 실패경험과 자존감을 위협하는 외상사건을 자신의 통제밖에 있는 외부적인 힘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수용적이고 관대한 부모는 아동이 덜 방어적이고 내적 통제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한다(Davis & Phares, 1969). 요약하면 발달시기의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은 아동의 내적 통제성향과 관련이 있었으며, 권위적이고 거부적이며 부정적인 외상사건은 외적 통제성향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심한 거부나 비난은 심리적 방임으로 여겨지며(Hildyard & Wolfe, 2002), 이는 복합외상인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활사건인 복합외상경험은 외적 통제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이 성인기 심리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연구되어 왔다. 특히, 복합외상의 대표적 유형인 아동기 학대경험은 많은 심리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동기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 자살생각, 우울, 불안, 알코올과 약물남용, 경계성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해리성 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urn, Jackson, Hilary & Harding, 2010; Campbell, Greeson, Bybee & Raja, 2008; De Bellis, 2001; Dutton, 1999; Van der Kolk, 2005).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비교적 일관적으로 보고되는 것이 우울과 공격성이다(강지영, 2002; 안동현, 2003; 장화정, 2004;

Shields, Cicchetti, & Ryan, 1994). 학대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좀 더 심각한 우울 수준을 보고한다(Silverman, Reinherz, & Giaconia, 1996). 복합외상의 하위유형인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아동의 우울 수준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옥자, 2005; 추소정, 2002), 여러 연구자들은 아동기 학대가 일생동안의 우울에 대해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Kaplan et al., 1998; Mullen et al., 1996; Portegijs et al., 1996; Young et al., 1997). 또한 Bernet와 Stein(1999)은 주요 우울장애를 겪는 개인들이 정서적 학대와 방임, 신체적 학대를 심각하게 회상하며, 아동기 외상과 우울을 겪는 개인은 외상 경험을 겪지 않은 우울한 개인보다 더 많은 공병 정신장애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내·외통제성과 우울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우울과 내·외통제성간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한다(박경민, 1995; 이미진, 2005). 즉,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우울이 높을수록 외적 통제성이 높으며, 우울이 낮을수록 내적 통제성이 높았다. 또한 외적 통제자는 내적 통제자보다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할 때 더욱 우울하며, 긴장과 상태불안, 특성불안과 같은 전반적인 정서에 불편감을 보이고 심리적인 문제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Cole & Sapp, 1988; Johnson & Sarason, 1978). 또한 통제소재는 일어나는 일에 대한 대처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내적 통제자는 외적 통제자보다 좌절에 건설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외적 통제자는 좌절에 건설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낮았다(Brissett & Nowcki, 1973; Lynd-Stevenson, 1996). 적응적 행동에 있어서는 외적 통제자일 경우 좀 더 반사회적 행동을 하며 보다 심각한 문제행동을 하였다(Carman,

1978).

한편, 지금까지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과 이후의 공격성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연구자들마다 공격성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는 문제가 있었다(장희순, 2013). 또한 분노와 적대감을 측정하는 질문지가 어떤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측정하는 질문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Martin et al., 2000).

분노감, 공격성, 적대감은 여러 학자에 의해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있다. ‘분노감’은 정서적 행동을 말하며 상황적이고 일시적인 반응으로 공격과 보복하고자 하는 개인의 충동을 수반한다. ‘공격성’은 남에게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손상을 끼치려는 고의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를 말한다. 반면, ‘적대감’은 분노가 진정된 후에도 남아있는 부정적인 감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생시키는 원인이 현재 되풀이되지 않는데도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백승혜, 2005). 또한, 적대감은 일시적인 반응인 분노와 공격성과 달리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개인의 인지적인 태도로 대상이나 사람을 향한 공격 행동을 동기화시킨다(Buss & Perry, 1992). 복합외상경험이 개인의 인지 도식에 영향을 나타낸다는 여러 연구에 근거하여 인지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적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대감과 통제소재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지만, 권석만과 서수균(2002)에 따르면, 공격성의 성격적 특질로 분노감, 적대감, 공격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통제소재와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적 통제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외적인 힘에 의해서 자신의 욕구가 좌절당한다고 느

낄 때, 이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이 방어기제로 작동하게 되며, 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느낄수록 더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었다(김경수, 2009). Joe(1971)도 외적 통제성이 높은 사람은 내적 통제성이 높은 사람에 비해 더 불안하고 공격적이고, 독단적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심우엽(1981)의 연구에서도 외적 통제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부족하며, 좌절감을 경험하고 억지를 잘 쓰고 공격적이며 적대적, 파괴적인 성향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청소년의 공격성과 통제소재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에서는 외적 통제성을 가질수록 공격성이 높았고 비행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수, 2009). 이처럼 외적 통제성은 외부의 힘이 통제력을 가진다고 여기는 것으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타인이나 환경, 운’ 탓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외부환경에 대해 불만족하며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더욱 대인관계문제나 부적응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은 개인의 내·외통제성에 대한 방향성과 성인기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대인 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복합외상경험은 환경을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외적 통제성을 가지는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개인에게 무기력을 경험하게 하며, 외부 대상에 대한 적대감을 느끼는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이 개인의 통제성의 방향성과 성인기 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며 통제성의 방향성이 복합외상경험과 성인의 우울과 적대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소재 20~30대 성인남녀 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3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응답 23부를 제외한 총 40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부분 대학 및 대학 내 상담센터에서 표집을 하였으며 일부는 대학생이 아닌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측정도구

복합외상

본 연구에서는 고나래(2007)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TAQ를 사용하였다. 복합외상 척도는 아동기 외상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Van der Kolk(1996)가 개발한 ‘외상경험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로, 전체 43문항으로 된 10가지 요인을 4점 Likert식척도 상에서 평정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Q의 10가지 외상 중 복합외상으로 적절하다고 알려진 3가지 요인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복합외상이 대인 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의에 따라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포함되기 때문이다(고나래, 2008). 본 연구에서 사용한 TAQ는 총 15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복합외상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측정한다. 고나래(2007)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가 .70이었고, 신체적 학대는 .74, 성적 학대는 .76,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은 .6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77로 나타났다.

내·외통제성

본 연구에서는 Levenson(1981)이 개발한 내·외통제성 척도를 기초로 하여 유기섭(1990)이 개발한 내·외통제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외통제성 척도의 하위요인은 내적 통제성(16문항), 외적 통제성(16문항) 2가지로 총 3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evenson(1981)이 개발한 내·외통제성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내적 통제성은 능력요인, 노력요인으로 나누어지며, 외적 통제성은 타인요인, 운요인으로 각각 나누어진다. 문항의 형식은 6점 Likert식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병환과 김경수(200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7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82로 나타났다.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판 유병률 연구센터-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CES-D)를 사용하였다. 본래 미국 정신보건원에서 일반인의 우울 증 역학 연구를 위해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의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주일 간 문항의 내용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4점 Likert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경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92로 나타났다.

적대감

본 연구에서의 적대감은 Buss와 Perry가 개발한 공격성 척도를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 공격성척도(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에는 신체적 공격성(9문항), 언어적 공격성(5문항), 분노감(7문항), 적대감(8문항) 등 4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의 형식은 5점 Likert식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 29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해당 요인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4개의 하위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적대감'에 해당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고,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연구에서 이 검사의 적대감 문항 간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4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복합외상경험이 우울과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외통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등 기술통계량을 확인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전제 조건이 되는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둘째, 잠재변인과 측정변수간의 관계구조가 경험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복합외상경험과 우울 및 적대감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구조모형분석 및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치 및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문제 분석 전, 주요변인인 복합외상경험, 내·외통제성, 우울 및 적대감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하고자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점수가 높을수록 변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복합외상경험, 내·외통제성, 우울 및 적대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합외상경험은 외적 통제성($r=.18, p<.01$)과 우울($r=.33, p<.01$), 적대감($r=.44, p<.01$)과 정적 상

관을 보였으며 내적 통제성($r=-.14, p<.01$)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내적 통제성은 우울($r=-.32, p<.01$), 적대감($r=-.22, p<.01$)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외적 통제성은 우울($r=.30, p<.01$), 적대감($r=.40,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내·외통제성은 서로 부적 상관($r=-.16, p<.01$)을, 우울과 적대감은 서로 정적 상관($r=.61, p<.01$)을 보였다. 다시 말하여 복합외상경험을 많이 할수록 외적 통제성을 가지며 우울과 적대감을 느끼고, 내적 통제성을 가질 경우 우울과 적대감을 덜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구조방정식 모델링에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분석할 자료에 대해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변량 정규분포를 충족하는 자료는 실질적으로 매우 적어 단변량 정규분포를 만족하는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점수범위
복합외상경험	6.85	5.03	0~45
정서적 학대 및 방임	4.19	3.07	0~18
신체적 학대	2.44	2.54	0~15
성적 학대	.21	.64	0~12
내적통제성	73.83	8.64	16~96
능력통제	35.96	4.56	8~48
노력통제	37.87	4.88	8~48
외적통제성	55.66	10.53	16~96
타인통제	25.57	5.77	8~48
운통제	30.09	5.96	8~48
우울	17.00	10.06	0~60
적대감	17.93	5.50	8~40

표 2. 측정변인의 단변량 왜도값과 단변량 첨도값

측정변인		왜도	첨도
복합외상경험	복합외상1	.99	.44
	복합외상2	.86	.10
	복합외상3	1.07	.94
내적통제성	능력통제1	-.56	1.18
	능력통제2	.18	.46
	노력통제1	-.37	.28
	노력통제2	-.43	.41
외적통제성	타인통제1	.21	-.12
	타인통제2	-.17	.21
	타인통제3	-.31	-.38
	운동제1	-.51	.78
	운동제2	-.16	.09
우울	우울1	.96	.26
	우울2	.64	-.15
	우울3	.48	-.14
적대감	적대감1	.34	.17
	적대감2	.49	.24

(배병렬, 2007). 정규성을 판단할 때 표준화 왜도지수의 절대값이 3.0보다 크면 왜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첨도의 경우 절대값이 10보다 크면 분포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문수백, 2009).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왜도와 첨도값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측정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잠재변인과 측정변수간의 관계 구조가 경험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

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전 모수추정 결과에서 위반추정치가 없는지 검토한 결과 오차분산이 모두 양의 값을 가져 Heywood Case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화 추정치가 1이상인 값은 없었으며 이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모수 추정치의 C.R 값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 적합도 지수 χ^2 , SRMR, GFI, RMSEA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 CFI, TLI를 선정하였다. 먼저 χ^2 검증은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모형이 기각될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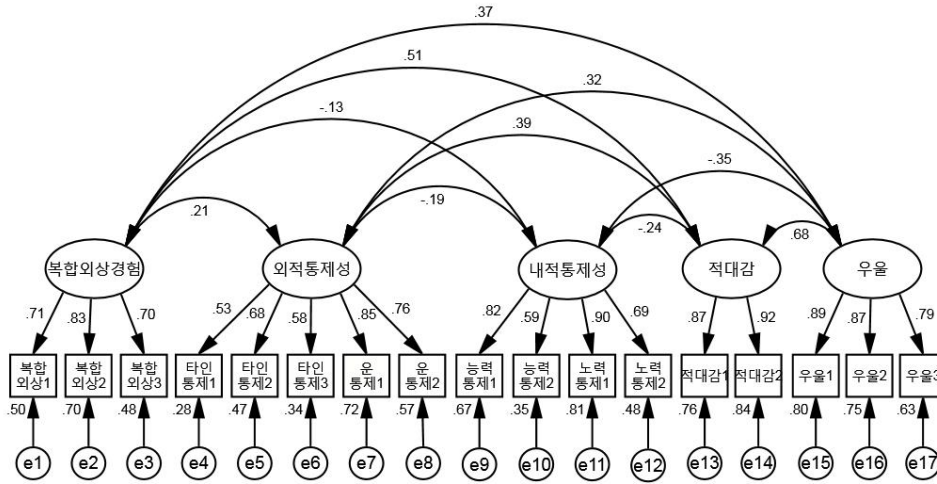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

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χ^2 검증은 모형채택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 Lewis Index)는 상대적 지수로 최악의 모형에 비해 모형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해주는가를 보여준다(홍세희, 2001). 일반적으로 CFI와 TLI값은 .90이상일 경우 적합도가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절대 적합도 지수인 GFI(Goodness of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절대적 지수로 GFI는 .90이상일 때 적합도가 양호한 것을 의미하며, RMSEA는 .05이하는 좋은 적합도, .08이하는 적당한 적합도이며 .10이상일 경우는 나쁜 적

합도임을 의미한다(Brown & Cudeck, 1993; 홍세희, 2001).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값은 대체로 .05나 .08이하의 값이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Hu & Bentler, 1999).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286.232, p < .001, df = 109, SRMR = .060, GFI = .925, CFI = .947, TLI = .934, RMSEA = .063$ 으로 절대 적합지수와 상대 적합지수가 모두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5요인으로 인과적 구조모형을 추정함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기대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에서 잠재변수간 상관이 .80인 경우 두 개의 잠재변수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으며 변별타당도가 낮은 것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SRMR	GFI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286.232***	109	.060	.925	.947	.934	.063

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서는 잠재변수간 상관인 .13~.68로 잠재변수간 상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53~.92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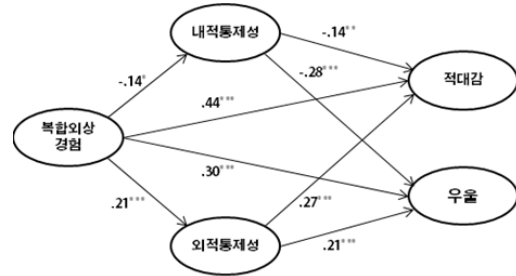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복합외상경험과 우울 및 적대감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의 경우 그림 2에 제시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 = 294.416$,

$p < .001$, $df = 110$, $SRMR = .07$, $GFI = .923$, $CFI = .945$, $TLI = .931$, $RMSEA = .064$ 으로 절대 적합지수와 상대 적합지수가 모두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연구 모형을 수용하였다.

수용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그림 2와 표 5와 같다. 복합외상경험은 외적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χ^2	df	$SRMR$	GFI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294.416***	110	.07	.923	.945	.931	.064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관계 변인	B	β	S.E	C.R	
복합외상경험 →	내적통제성	-.23	-.14	.10	-2.33*
	외적통제성	.30	.21	.09	3.38***
	우울	.42	.30	.08	5.19***
	적대감	.80	.44	.11	7.49***
내적통제성 →	우울	-.23	-.28	.04	-5.32***
	적대감	-.15	-.14	.05	-2.82**
외적통제성 →	우울	.21	.21	.06	3.82***
	적대감	.35	.27	.07	4.89***

통제성($\beta=.21, p<.001$)과 우울($\beta=.30, p<.001$) 그리고 적대감($\beta=.44,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적 통제성($\beta=-.14, p<.05$)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통제성은 우울($\beta=-.28, p<.001$)과 적대감($\beta=-.14, p<.01$)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 통제성은 우울($\beta=.21, p<.001$)과 적대감($\beta=.27,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합외상경험을 많이 할수록 내적 통제성보다 외적 통제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우울과 적대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적 통제성을 가질수록 우울과 적대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의 분석을 통해 경로계수를 파악한 후 변인 간의 효과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분석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복합외상경험, 내·외통제성, 우울 및 적대감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 간접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AMOS를 이용할 경우 두 개 이상의 매개효과가 있는 모형에서 특정 경로를 통한 하나의 매개효과만을 구분하여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팬텀변수를 이용하여 개별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연은모, 최연식, 2014). 팬텀변수는 일종의 가상 변인으로 모형 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Cheung, 2007; Macho & Ledermann, 2011). 따라서 부트스트랩(Bootstrap)절차에 따라 원자료(N=407)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자료 표본을 모두 추정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했다.

팬텀변수를 이용한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복합외상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간접효과는 .054, $p<.05$ 이며, 외적 통제성의 간접효과는 .064, $p<.01$ 로 나타났다. 또한 복합외상경험과 적대감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간

표 6. 최종모형의 총 효과 분해 및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독립변인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매개변인	종속변인			
복합외상 경험	내적통제성	내적 통제성	-.137	-.137*	
		외적통제성	.212	.212***	
	외적통제성	우울	.379	.296***	.083**
		적대감	.518	.441***	.077***
내적 통제성		우울	-.275	-.275***	
		적대감	-.138	-.138**	
외적 통제성		우울	.212	.212***	
		적대감	.273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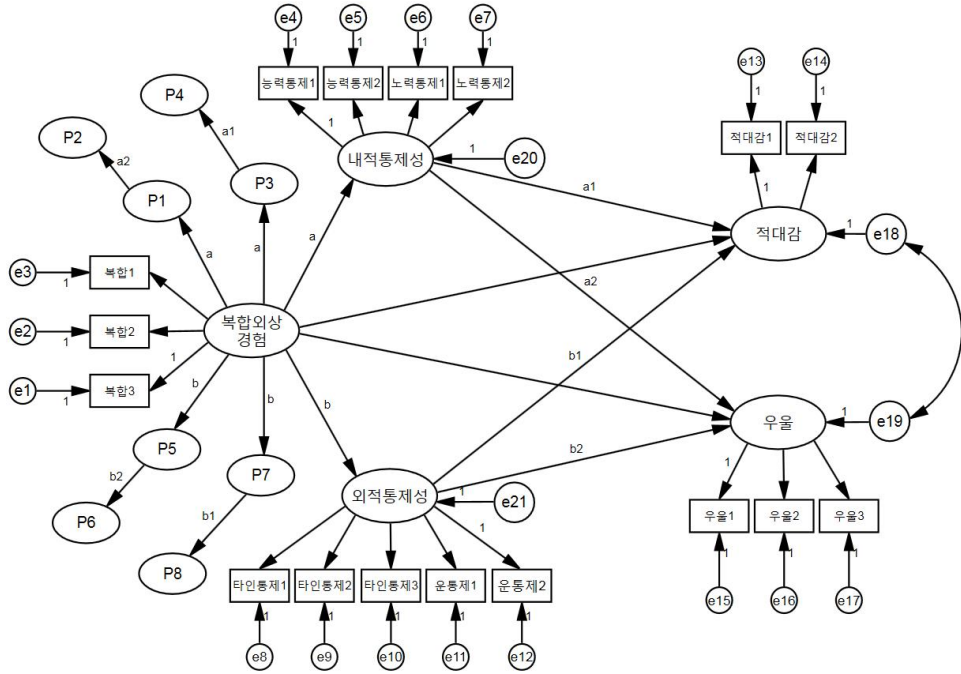


그림 3. 팬텀변수를 이용한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표 7. 팬텀변수를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경로			간접효과		95% C.I.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B	S.E	상한	하한
복합 외상경험	내적통제성	우울	.054*	.028	.115	.003
		적대감	.034*	.021	.091	.003
복합 외상경험	외적통제성	우울	.064**	.025	.124	.025
		적대감	.105***	.038	.197	.044

접효과는 .034, $p < .05$ 로 나타났으며, 외적 통제성의 간접효과는 .105, $p < .001$ 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이 성인기의 우울 및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서 내·외통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대구경북소재 D대학의 대학생, 그리고 K시 일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내·외통제성, 우울, 적대감을 묻는 질문지를 배부하고 아동기 복합외상경험과 우울 및 적대감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성이 매개하는 직접경로와 간접경로를 설정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복합외상경험은 외적 통제성, 우울, 적대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내적 통제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통제성의 경우, 외적 통제성은 우울, 적대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내적 통제성은 우울, 적대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외적 통제성을 가지게 되며 우울과 적대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기에 학대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Calhoun, Cheney & Dawes, 1974; Moyal, 1977; Silverman, Reinherz, & Giaconia, 1996)하며, 발달시기의 권위적이고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환경은 외적 통제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Jalowiec, 1968; Phares, 1968).

반면,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이 낮을수록 내적 통제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내적 통제성을 가진 개인은 성인기에 우울과 적대감을 적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발달과정에서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환경이 내적 통제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 선행연구(Davis & Phares, 1969)와 내적 통제성을 가질수록 욕구좌절상황에서 보다 더 건설적인 반응을 보이고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더욱 능동적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Brissett & Nowick, 1973; Abramowitz, 1973).

둘째, 내적 통제성과 외적 통제성은 복합외상경험과 우울 및 적대감의 관계를 모두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이 성인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외적 통제성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고,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복합외상경험이 외적 통제성을 거쳐 우울과 적대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적 통제성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고,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내적 통제성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복합외상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내적 통제성을 가진다면 우울과 적대감이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적 통제자는 문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려하기 보다 문제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거나 행동을 억제하려는 억압적 대처행동을 보이는 데 반해 내적 통제자는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Parkes, 1984). 또한 외적 통제성이 부정적 정서 및 부정적 인지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내적 통제성이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며 보다 적극적인 대처행동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도 존재한다(Causey & Dubow, Duke & Lewis, 1979; Strickland, 1972; 1992; Kliever, 1991; Carvel et al., 1989).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자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이 성인기 우울과 적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동기 학대가 우울과 공격성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주는데, 본 연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외상이 적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적대감은 ‘남을 적으로 여기는 감정’으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있어서 주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이 성인기의 우울 및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외통제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내·외통제성과 부정적 정서와의 관계에서 몇몇 연구자들의 상반된 주장을 하였는데(Hann, 1982; Kliever, 1991),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복합외상경험이 있다하더라도 통제성의 변화를 통해 부적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자기 통제감을 높일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와 내적 통제력을 강화시키는데 유용한 현실치료가 부정적 정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Glasser, 1998).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해야 할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구경북소재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임상집단이나 복합외상경험의 수준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복합외상경험의 수준이 높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임상집단에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복합외상경험의 하위요인 중 성적 학대는 내적 합치도가 .48로 낮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적 학대에 대한 내적 합치도가 높은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 환경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관찰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적대감은 이에 반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장지영 (2002). 피학대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가족 내외의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나래 (2008). 아동, 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유나 (2015).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1996). 우울과 불안의 관계: 유발 생활 사건과 인지내용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심리과학*, 5(1), 13-38.
- 권석만 (200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243-250.
- 권석만, 서수균.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87-501.
- 김경수 (2009). 중학생의 자살생각과 공격성 및 귀인성향과의 관계.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환, 이주옥, 이병준 (2008). 체육수업에서 여학생 정서경험 사례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3), 13-32.
- 박소현, 김문수 (2004). *학습과 행동*.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소연, 김봉환 (2009). 집단미술치료가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16(1), 67-94.

- 김은경, 이정숙 (2008). 아동기 학대경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123-134.
- 김은혜, 서수균 (2013).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에서 부적응적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533-548.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경민 (1995). 아동의 우울성향과 내외통제성 및 어머니 언어통제유형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나영 (2010).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복합 외상 증상 및 성격 특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석 (1999). 자녀의 학대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백승혜 (2005).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옥 (1996).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재수생의 내·외통제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2007). 한국판 적대적 자동적 사고 척도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2), 533-543.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애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809-826.
- 서지수 (2015). 아동기 외상 경험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위덕 (1994). 여대생의 대인불안, 우울성향 및 내·외통제 성향간의 관계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우엽 (1982). 귀인이론이 교육에 주는 시사. *춘천교육대학교 논문집*, 22, 277-294.
- 안동현, 강지윤 (2003). 아동학대 및 방임. *신경정신의학*. 42(1), 14-33
- 안동현, 장화정 이영애, 홍강의, 이재연, 이양희, 곽영. (2003). 신고된 사례의 아동학대 실태와 후유증 연구. *아동과권리*, 7(1)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17-231.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외상 경험과 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3(1), 31-42.
- 안현의 (2007). 복합외상(Complex trauma)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05-119.
- 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자기체계의 손상으로 본 복합외상증후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283-301.
- 안현의, 주혜선 (2011). 단순 및 복합 외상 유형에 따른 PTSD의 증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869-887.
- 윤상영 (2013). 아동기 학대 경험 및 부부폭력 노출 경험이 성인기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진 (2005).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지 (2014).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기 (2005).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한 대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내외통제성, 진로의식성숙도, 진로탐색행동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 최정희 (1998).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귀인양식 분석. 한국대학상담학회지, 9(2), 159-195.
- 이현정, 장희순 (2014). 청소년의 복합 및 다중 외상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초기 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1), 39-59.
- 이훈구 (1980). 한국 초중고 학생의 내외통제 경향성. 학생생활연구, 4 41-59.
- 장화정 (2004). 아동학대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과권리, 8(4), 777-792.
- 장희순, 이승연 (2013).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3), 19-48.
- 조성호 (2000).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화: 통합적 접근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1), 47-67.
- 조은정, 이기학 (2004).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5(3), 583-595.
- 최현정, 이훈진, 이화영 (2014). 고문 생존자의 외상기억표상의 특성과 외상후 심리적 증상과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3), 459-481.
- 추소정 (2002). 정서적 학대와 자아 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심리현상의 분석: 집단 변화 및 심리특성에 관한 다변인 자료분석 방법.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연구방법론 워크숍.
- Aiken, P. A., & Baucom, D. H. (1982). Locus of control and depression: That confounded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4), 391-395.
- Allen, J. G. (1995). Coping with trauma: A guide to self-understanding.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refoot, J. C., Dahlstrom, G. W., & Williams Jr, R. B. (1983). Hostility, CHD incidence, and total mortality: A 25-year follow-up study of 255 physicians. *Psychosomatic Medicine*, 45(1), 59-63.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ernet, C. Z., & Stein, M. B. (1999). Relationship of childhood maltreatment to the onset and course of major depression in adulthood. *Depression and Anxiety*, 9(4), 169-174.
- Burns, E. E., Jackson, J. L., & Harding, H. G. (2010). Child maltreatment, emotion regul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The impact of emotional abus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8), 801-819.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
- Campbell, R., Greeson, M. R., Bybee, D., & Raja, S. (2008). The co-occurrence of childhood sexual abuse, adult sexual assault,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A mediational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 disorder and physical health outcom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2), 194.
- Cohen, H., Kotler, M., Matar, M. A., Kaplan, Z., Loewenthal, U., Miodownik, H., & Cassuto, Y. (1998). Analysis of heart rate variability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atients in response to a trauma-related reminder. *Biological Psychiatry*, 44(10), 1054-1059.
- Cole Jr, T., & Sapp, G. L. (1988). Stress, locus of control, and achievement of high school seniors. *Psychological Reports*, 63(2), 355-359.
- Como, J. J., Dutton, R. P., Scalea, T. M., Edelman, B. B., & Hess, J. R. (2004). Blood transfusion rates in the care of acute trauma. *Transfusion*, 44(6), 809-813.
- Crandall, V. C., Crandall, V. J., & Katkovsky, W. (1965). A children's social desirability questionnair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1), 27.
- Davis, W. L., & Phares, E. J. (1969). Parental antecedents of internal-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Reports*, 24(2), 427-436.
- De Bellis, M. D. (2001). Developmental traumatology: The psychobiological development of maltreated children and its implications for research, treatment, and polic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03), 539-564.
- Duke, M., & Lewis, G. (1979). The measurement of locus of control in black preschool and prim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3(5), 479-480.
- Foa, E. B., Riggs, D. S., Dancu, C. V., & Rothbaum, B. O. (199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brief instrument for assess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6(4), 459-473.
- Ford, J. D., Courtois, C. A., Steele, K., Hart, O. v. d., & Nijenhuis, E. R. (2005). Treatment of complex posttraumatic self dysregul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5), 437-447.
- Friedman, M., & Rosenman, R. H. (1959). Association of specific overt behavior pattern with blood and cardiovascular findings: Blood cholesterol level, blood clotting time, incidence of arcus senilis, and clinical coronary artery diseas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69(12), 1286-1296.
- Gambone, G. C., & Contrada, R. J. (2002). Patterns of self-and other-representation in trait hostili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1(5), 546-565.
- Gelinas, D. J. (1993). Relational patterns in incestuous families, malevolent variations, and specific interventions with the adult survivor. *Treatment of Adult Survivors of Incest*, 1-34.
- Glasser, W. (1998). *Choice theory: A new psychology of personal freedom*. New york: Harper Perennial.
- Gnepp, J., & Chilamkurti, C. (1988). Children's use of personality attributions to predict other people's emotional and behavioral reactions. *Child Development*, 743-754.
- Hardy, J. D., & Smith, T. W. (1988). Cynical hostility and vulnerability to disease: Social support, life stress, and physiological response to conflict. *Health Psychology*, 7(5), 447.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377-391.
- Hildyard, K. L., & Wolfe, D. A. (2002). Child neglect: developmental issues and outcomes. *Child Abuse & Neglect*, 26, 679-695.
- Hinton, W. L., Tiet, Q., Tran, C. G., & Chesney, M. (1997).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refugees from vietnam: A longitudinal study of new arrival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1), 39-45.
- Houston, B. K., & Kelly, K. E. (1987). Type A behavior in housewives: Relation to work, marital adjustment, stress, tension, health, fear-of-failure and self esteem.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1(1), 55-61.
- Joe, V. C. (1971). Review of the internal-external control construct as a personalty variable monograph supplement 3-V28. *Psychological Reports*, 28(2), 619-640.
- Johnson, J. H., & Sarason, I. G. (1978). Life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Internal-external control as a moderator variab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2(3), 205-208.
- Kliewer, W. (1991). Coping in middle childhood: Relations to competence, type A behavior, monitoring, blunting, and locus of 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89.
- Lakey, B., & Cassady, P. B. (1990). Cognitive processes in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2), 337.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725.
- Lopez, M. A., & Heffer, R. W. (1998). Self-concept and soci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 victim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2(3), 183-195.
- Luxenberg, T., Spinazzola, J., & Van der Kolk, B. (2001). Complex trauma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DESNOS) diagnosis, part one: Assessment. *Directions in Psychiatry*, 21(25), 373-392.
- Lynd-Stevenson, R. M., & Rigano, L. M. (1996). Threat expectanc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ional style for negative outcomes and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0(6), 637-651.
- Lynd-Stevenson, R. M., & Rigano, L. M. (1996). Threat expectanc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ional style for negative outcomes and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0(6), 637-651.
- Lynd Stevenson, R. M. (1996). A test of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in unemployed young adul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1), 117-132.
- Maker, A. H., Kimmelmeier, M., & Peterson, C. (1998). Long-term psychological consequences in women of witnessing parental physical conflict and experiencing abuse in childhoo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5), 574-589.
- Martin, R., Watson, D., & Wan, C. K. (2000). A three factor model of trait anger: Dimensions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68(5), 869-897.
- McLEER, S. V., Deblinger, E., Henry, D., & Orvaschel, H. (1992). Sexually abused children at high risk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1(5), 875-879.

- Moyer, J. H., Heider, C., Pevey, K., & Ford, R. V. (1958). The effect of treatment on the vascular deterioration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with particular emphasis on renal function. *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24(2), 177-192.
- Mullen, P. E., Martin, J. L., Anderson, J. C., Romans, S. E., & Herbison, G. P. (1996). The long-term impact of the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A community study. *Child Abuse & Neglect*, 20(1), 7-21.
- Nowicki, S., & Brissett, M. (1973). Internal versus external of reinforcement and reaction to frustr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5(1).
- Nowicki, S., & Strickland, B. R. (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1), 148.
- Pelcovitz, D., Van der Kolk, B., Roth, S., Mandel, F., Kaplan, S., & Resick, P. (1997). Development of a criteria set and a structured interview for disorders of extreme stress (SID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1), 3-16.
- Phares, E. J. (1976). Locus of control in personality. General Learning Press.
- Phares, J. E., Ritchie, E. D., & Davis, W. L. (1968). Internal-external control and reaction to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 402.
- Portegijs, P. J., Jeuken, F. M., Van der Horst, F. G., Kraan, H. F., & Knottnerus, J. A. (1996). A troubled youth: Relations with somatization, depression and anxiety in adulthood. *Family Practice*, 13(1), 1-11.
- Rose, D. T., & Abramson, L. (1992). IX developmental predictors of depressive cognitive style: Research and theory.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Depression*, 4, 323.
- Roth, S., & Newman, E. (1991). The process of coping with sexual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4(2), 279-297.
- Rotter, J. B. (1954). Social learning and clinical psychology.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
- Rotter, J. B. (1975). Some problems and misconceptions related to the construct of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1), 56.
- Shields, A. M., Cicchetti, D., & Ryan, R. M.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and behavioral self-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among maltreated school-age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57-57.
- Silverman, W. K., Saavedra, L. M., & Pina, A. A. (2001). Test-retest reliability of anxiety symptoms and diagnoses with the anxiety disorders interview schedule for DSM-IV: Child and parent vers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0(8), 937-944.
-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in Personality*

- Assessment*, 2, 159-187.
- Van der Kolk, Bessel A, & Fislter, R. (1995). Dissociation and the fragmentary nature of traumatic memories: Overview and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8(4), 505-525.
- Van der Kolk, Bessel A, Roth, S., Pelcovitz, D., Sunday, S., & Spinazzola, J. (2005). Disorders of extreme stress: The empirical foundation of a complex adaptation to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5), 389-399.
- Zucker, M., Spinazzola, J., Blaustein, M., & Van der Kolk, Bessel A. (2006). Dissociative symptomatology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Journal of Trauma & Dissociation*, 7(1), 19-31.
- 원고접수일 : 2018. 11. 07.
수정원고접수일 : 2018. 12. 21.
게재결정일 : 2018. 12. 21.

Effects of Complex Trauma in Childhood on Depression and Hostility as Adults: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External Control

Shim, Du Gyeong

Baek, Yong-Mae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mplex traumatic experiences during childhood on depression and hostility as adults and to verify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locus of internal-external control, which is considered a characteristic aspect of personality. For this purpose, 430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were sampled from Daegu and Gyeongbuk provinces, and the data from 407 participant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A trauma experience scale, locus of 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hostility scale, and depression scale were used as measurement tools. The mediating effect was analyz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childhood complex trauma experie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external locus of control, depression, and hostility in adults and negatively related to internal locus of control. Second, both external and internal control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of trauma on depression and hostility in adults. This suggests that the experience of complex trauma in childhood positively affects depression and hostility in adults through external control. In addition, even with complex traumatic experiences in childhood, depression and hostility in adults can be reduced if they have an internal locus of control.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stud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hood complex traumatic experience, locus of internal-external control, depression and hostility as adults.